

## 13년 키운 광주 광산업 내년부터 걱정이다

### 3단계 진흥사업 마무리...정부 지원 축소 성장 위축 불가피

광주시가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육성해 온 '광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3단계 지원정책이 13년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830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 광산업을 자동차·가전과 함께 광주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필수적인 첨단 인프라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시적인 지원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광산업 발전에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차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전

행되어 온 '광주 광산업 3단계 진흥사업'이 올해 말로 끝이 난다. 정부와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13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자 포함 모두 8348억여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했으며, 이 기간 동안 광주 광산업은 누적 매출액 9조 5145억원, 364개의 광산업체에 8000여명의 고용인원 등을 기록하며 국내 광산업의 메카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빛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광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지역 전략산업 3단계 진흥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광주 광산업이 광역전략산업사업에 포함돼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광기술원의 첨단장비를 비롯해 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지원은 끊어지거나 크게 줄 수밖에 없어 자칫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광주 광산업의 발전도태가

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금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금까지는 지역전략산업인 광주 광산업 전반에 대해 국가차원의 명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광산업 발전로드맵에 광주 광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시 광산업 이을 성장동력 '그래핀' 육성

광주시가 광(光)산업을 이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탄소나노 소재인 '그래핀'을 추켜들었다. 10여년 전 지역민들에게 낯설었던 광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키워냈듯이 이번엔 그래핀산업을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16일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시는 광산업 후속 전략산업으로 그래핀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화 숭례세미나를 열어 '광주 그래핀 소재 상용화 및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세미나에서 그래핀 소재 및 가공의 원천기술을 선점해 세계적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주그래핀상용화지원센터를 구성해 기술 개발과 산업화, 인력양성,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비 28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2013년~2015년)로 핵심기업 10개사를 육성해 그래핀 합성 원천기술과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어 2단계

(2016년~2019년)로 양산화 기술 확보하고 3단계(2020년~2023년)로 그래핀 소재 및 응용제품 상용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2면에 계속>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그래핀=탄소 원자로 이뤄진 2차원 평면구조의 신소재, 실리콘의 100배에 이르는 높은 전하 이동도와 구리의 100만배에 달하는 전류밀도, 강철보다 200배 강한 강도를 지녔다. 다양한 산업에 응용 가능한 핵심 소재로 '꿈의 신소재'라 불린다.



광주 김치축제 오늘 폐막 '세계 김치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16일 광주 북구 중외공원 내 남도 김치 판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김치를 시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교장들 시교육감 정책 "부정적"

### 이용섭 의원 국감 설문...전남은 대체로 긍정적 '대조'

####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 2012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 2012. 10. 21(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성호

광주지역 학교장들이 시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학교장들은 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조를 보였다. 16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교장 421명(광주 80명·전남 341명)명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감 인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만족도가 전남도교육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광주 학교장들은 응답자의 25%만이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추진방법이나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52.5%에 달했으며 '교육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응답도 22.5%였다. 반면 전남지역 학교장의 76.8%는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3.1%에 그쳤다.

현 교육감의 문제점으로 광주지역 학교장들은 '일선학교와의 소통부족(52.4%)'과 '명문대 합격을 저하 등

#### 알림

### 두바퀴의 가을 스토리

10월 21일 'Green 자전거축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2012 Green 자전거축제'가 오는 10월 21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자전거 인구 확대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아름다운 남도의 햇살과 함께 하는 이번은 축제에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10월 21일(일) 오전8시30분 출발
- 코스 : 광주상무시민공원~동신대앞교차로~대산삼거리~서창교~광주상무시민공원
- 종목 : 로드레이싱 50km(경쟁/연령대 구분)
-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협찬: 4대강 새물결 K water

학업성취도 하락(26.3%)' 등을 꼽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소통 부족(28.4%)', '잘못된 교육철학'(12.9%) 등이 제시됐다. 일선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현 교육감 취임 이전과 비교할 때 광주에서는 57.5%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37.5%, '좋아졌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전남의 면학분위기에 대해 57.5%가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좋아졌다' 36.7%, '나빠졌다'는 5.6%에 그쳤다. 이용섭 의원은 "설문조사는 광주·전남 교육정책의 현수소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은 임기 중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雪花秀  
Sulwhasoo  
INNERSENSE  
COMPLETE SERUM  
여민에센스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의 기본은 속부터 단단히 여민 피부입니다 설화수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가 느슨해지면 피부 빛, 피부 결, 피부선 모두 무너집니다. 문제의 근본인 피부 밀도를 개선하여 흐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까지 한 번에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피부를 단단히 여민은 순간,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은 시작됩니다. 근본에서 찾는 더 좋은 대답, 여민에센스

Sulwhasoo

· 유엔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kr · www.facebook.com/sulwhasookorea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